建築士 職能変化와 空間概念

姜 明 求 (中央大学校教授)

元來 建築士라는 말은 英語의 Architect 로서 建築家라는 말이다.

그 語源은 희랍語의 Architecton이며 이 말은 또 Techne 即 技術이 能한 者라는 뜻에서 온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建築士와 建築家가 때로는 混同 되기 쉬우나 建築士資格은 国家試験에 의하여 받은 稱号는 다아는 바이지만 建築家는 現在 韓国建築家協会에 属해 있으며 特別한 資格 賦與는 없어도 좋은 建築을 設計할 수 있는 諸般條件을 갖은 一定한 学識과 作品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会員으로 되고 있다.

勿論 建築家라고 하더라도 建築士와 같은 設計業을 独自的으로 運営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 하려는 Architect는 国家試験에서 資格을 얻은 建築士를 뜻하는 말이다.

Architect 即 建築士라는 뜻이 近來에 와서는 처음 語源에서의 풀이와 같은 技術이 能한 者라는 概念만으로는 行하기 어려운 複雜한 時代에 逢着되고 만것 같다.

歷史上으로 본 建築士 職能이 変化되어 왔음은 如実히 證明되고 있다.

이러한 時代의 変化가 우리들 建築士의 職能을 現時代에 맞도록 올바르게 찾아 보는것도 重要한 意義가 있다고 본다.

一般的으로 어떤 概念이 変形될 때나 또는 価値에 変換이 生기는 것은 언제 어느 時代에서나 社会的 으로도 무슨 変更이 生길 때이다.

가까운 例로 20世紀 初의 産業革命이 모든 工業生産의 増大라는 変化와 더불어 人間의 経済的 階級的인 関係変化를 社会全般에 미치게 한것과같이 어느 変化가 特定의 問題의 性格까지를 다르게 하고 마는 일은 歷史에서도 흔히 볼수 있다.

이러한 現象들은 宇宙生命의 흐름이기도 한 成長이라는 自然的 現象일지도 모른다.

"모든 変化는 刺戟을 일으키고 그 刺戟이 새로운 生命을 낳게 한다"는 프로이드의 発見과도 合致된다.

그러므로 建築士의 職能도 역시 그 時代의 흐름에 対應하여 変化되어야 한다고 볼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感受性인 能力을 持続시키기 위해서도 恒常 모든 것이 変化되어야 하는 印象을 必要로 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5~60年前 우리나라 韓屋時代에서는 都辺手인 木手가 中心이 되었던 建築物들이 漸次 建築技術者들에 의하여 計劃設計, 工事施工, 全般을 掌握 指導하던 일들이 생각된다.

또 1949年 美国의 A. I. A. 総会에서는 새로운 会則으로 「建築士는 直接또는 間接的으로도 請賦業에는 従事치 못한다」라고 定하였다.

建築士는 個人的으로도 尊厳과 信用으로 建築의 創造, 創作에만 힘써야 한다고 하던 時節, 또는 建築의 芸術性과 機能説로 모든 建築을 芸術作品으로 昇化시키던 時節, 이러한 여러가지 変遷을 詩化로 우리나라에서도 建築研

究所(?) 또는 建築事務所에서 作成한 手續專用 設計까지가 自主性과 非妥協性, 我執이 通用되던 時節들을 거쳐 現在에 와서는 民主主義的 社会的 見地에서 또는 地域社会 都市美觀的인 側面까지의 高次元으로 建築의 設計行為도 多角的인 展開로 変하고 있다.

그러므로 建築士自体의 概念보다는 設計 職能또는 設計行為를 어떻게 規定짓느냐가 더 큰 問題로 되고 말았다.

이러한 社会的 変革으로 이에 対應해야 할 建築士들의 職能도 変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前 時代에 지어진 많은 建物들을 보면 驛舍, 銀行, 美術館 等等 의記念的 인建物 또는 名 建物로 남은 建物들이 懷古的이고 芸術的이긴 하나 모두가 消耗的이고 非生産的인 建物들이었다.

이와는 달리 近間의 建築들은 急速히 增大되는 経済成長으로 工業団地의 大工場 大倉庫 産業施設建物 이에 附随하는 住居大団地 大規模의 高層事務所등 이들 大規模建物들은 作家然하던 建築士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芸術的作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큰 怪物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며 크고 높고 넓은 이러한 形体들은 形態 意匠上으로도 도저히 整理하기 힘드는 建物들이다.

이러한 建物은 建築士가 制作하는 것이 아니라 技師나 엔지니어들의 할 일로 생각하던 時節도 지났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産業発展에 따라 建築士도 이들 対象의 研究와 作品表現에서도 이에 対應할 수 있는 새로운 課題로 登場시켜야 한다. 即 社会的 変化 에서의 建築士들의 職能도 設計対象의 変化에 따라 새로운 内外部 空間에 対한 機能의 追求 生産技術의 発展, 大規模化에 따른 構造技術의 合理性 研究 機械化 輸送計劃 資材開発과 強度論의 進展 施工法 研究에 의한 工期短縮 経済性 等의 새로운 設計対象들은 以前 都辺手인 木手 中心의 建築에서 techne 的인 새로운 建築士 建築家, 教授, 技術者들의 合力이라는 課題로 変해지고 있다.

옛날의 都辺手이던 木手는 現在 一般建築 職工 에서도 同位以下로 떨어져 버리고 그 代身 다시 techne이 나와 建築工事 全域을 指導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現代의 techne은 垈地決定 計劃 設計施工方法, 現場運営, 請負者와의 協力, 造園, 外部空間과의 調和 建築後의 地域発展에 이르기 까지의 全般을 管掌 理解할 수 있도록 合力된 사람을 뜻한다

이러한 世界的인 傾向에서의 建築士들의 設計 行為는 그 対象의 変化에 따라 새로운 資材의 発堀 土地 利用과 人口密度 土地効用, 高層化 産業의 大形化로 因한 機械設備의 複雜性 住居用 大団地의 日照問題, 安全性, 나아가서는 都市의 景観消滅로 外部空間의 人間性 複雜에 이르는 방대한 複合関連性 때문에 建築表現 方式도 그表現의 自由를 拡大시키고 있으며 造形에 対한 過去의 美意識도 整備되지 못한채 構造, 資材 附帶設備 때문에 経済的인 共通된 Module 採択이 平面을 定하고 立面을 決定하는 式의 造形에 対한 理論은 右往左往인채 끌려가고 있는 形便이 되고 말았다.

더구나 이러한 狀況속에서 또하나 設計에 크게 要求되는 問題는 于先 工期의 短縮에서 오는 最短時間内 라는 操急한 設計期間의 短縮이 特徵이다.

短期間 設計要求의 対象이 되는 建物들은 오히려 해마다 巨大化되고 複雜 複合 高度化되어 감으로 設計業務量과 設計期日은 恒常 反比例되는 것도 重大한 問題로 抬頭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어려운 問題들을 内包하고 있으면서 建築生産의 近代化에 対應하여야 되는 建築設計 職能도 새로운 運営方向으로 早速히 그 対備体裁를 갖춰야 한다.

建築 디자인의 方向도 前과 같은 様式論, 造形論的테두리에서 벗어나 資材의 規格에 맞는 構造設備, 工期의 合理化를 위한 Module의 必然性은 建築設計도 作品的 인것으로 보다는 techne 的인 置重計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뜻은 이제까지 建築士들이 생각하던 経験為主的이던 것 또는 主観的이던 設計 行為에 対한態度를 自我가 아니고 民主的 人間尊重의 傾向으로 客観的인 面에서의 建築士 自身의 建物이 아니고 그 時代의 大多数 国民들의 眼識과 建物을 実際로 使用하는, 또한 시민들을 主로 한 大衆性을 말하며 아파아트 団地도 住民들의 内部 空間은 勿論, 外部 空間에서의 生活이라는 重要한 客観性이 크게 要求되는 現代 建築에서 더구나 機能의 多様化 複雜化 規模의 大型化에서 오는 設計 範囲의 增加는 以前과 같이 타렌트的 存在이던 하나의 建築士로는 도저히 勘當치 못하게 되고 말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벌써 우리나라에서도 建築士와 構造計算 技術者 또는 建築士와 意匠的인 建築家 또는 冷暖房設備 技師 電気技師 等과의 合作은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더욱 専門化 分業化되어 計劃 使用資材, 電気, 防災, 安全性, 冷暖性, 内部装飾, 外部空間, 造園等의 専門研究를 거친 建築士 教授, 建築家, 技師, 造園師 들의 合作이 必要하게 될 것이 確信 된다.

筆者가 実務한 美国의 設計事務所를 例로들면 以上과 같은 合力組織으로 그 巨大한 美国의 建築 生産이 손쉽게 이루어졌음을 実感할 수 있었다.

하버드 大学 建築科 率業生이 色彩専門인 디자인에만 合力하는가 하면 또 資材의 規格 設計만 専務 한다든지 造型専務, 情報専門 等으로 各己 타렌트的이 아닌 하나의 꿀벌적 役割의 集成으로 그 巨大한 美国의 建築文化를 이룩한 底力을 如実히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現狀도 이와 똑같은 体係的 設計方案이 現在에는 時急한 問題로 抬頭 되었다는 時点에 와 있다.

그러므로 建築士의 職能도 組織的이고 合力的인 方向

을 模索할 때가 왔다.

이러한 緊急動意는 現在 우리나라에서 論義되고 있는 建築士의 有機的인 合同 連帶에서도 또 더 크게는 建築士와 教授, 建築家, 技師의 合同 連帶에도 事前 參酌될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設計行為가 建築生産의 全過程의 한 部分 部分의 모음으로 그 全過程을 組織化하는 사람 即 建築士의 職能의 高次的인 変化를 가져오게한 時代的 必然性인것 같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高度의 経済成長과 科学技術의 急速한 発展은 建築生産의 向上, 合理化를 위하여 論議되었어야 할 때가 現 時点에서도 좀 늦은 感은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建築士들의 職能은 分化, 合力 組織化 되어야 할 時急한 큰 問題로 抬頭되어 있다.

再言이 되지만 建築士의 職能을 돌이켜 보면 여태껏 自主的이고 自由業이던 建築士 観에서도 큰 回転点에 오고 말았다. 建築士의 資格은 勿論 国家試験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지만 所謂 建築家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이들 建築家들은 大概 個人名이 붙어있는 建築士 事務所나 그 外에는 合力들을 하고 있다.

間或 그들 建築家들의 設計가 建築士 名義로 許可提出되어 建設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建築士와 建築家, 教授, 技術者들의 協力의 可能性도 合力 設計의 組織的 職能의 開発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構造, 設備, 意匠, 施工 심지어 請負業者와의 協議에 依한 結果가 좋은 作品이 된다면 그것은 1949年 A. I. A. 가 意図的으로 建築士의 權威를 높이기 위한 他業種 特히 請負業者와의 結托을 禁한 会則自体도 現代의 総体的인 設計体裁에서 볼때에는 建設的인 解決方案은 되지 못한것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이러한 屈曲되게 解釋되기 쉬운 建築士의 올바른 自主性을 回複하는 길은 建築設計라는 創造 行為에 있어서 精神的인 自由가 不可欠인 것으로 보고 이것을 그 作品 問題로 代替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結局은 質이 높은 作品을 만든다는 것에는 반드시 그 建築士의 自主性은 完全히 確保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質이 높은 作品이란 勿論 建物個体의 그 機能的 解決도 重要는 하지만 그 建物이 세워질 立地條件, 地域, 団地 또는 都市 総体를 해치는 일이 없이 人間的인 観点으로 보아 좋은 生活還境 空間의 再生을 為한 配慮가 加味된 作品을 뜻하는 것이다.

이것을 더 詳細히 説明한다면 設計対象으로써의 個体以外에 必需되는 公共施設의 重要視(例로 아파아트 団地内에서의 老人, 어린이 놀이터 駐車場, 造園等의 適正配置)되어야 하며 設計의 目標인 住居団地로서의 内, 外部空間의 處理가 漸次 専門化에 따라 設計의 対象도 多様化됨으로 各 分野別의 専門 知識人의 協同設計가 必要하게 된다.

現代에 와서는 再來式 設計方法만으로는 이러한 複雜한 問題들을 뒤따르지 못하게 되므로 建築士들의 設計事務所 運営 組織도 問題가 된다.

이러한 多角的인 建築設計의 計劃은 이제 建築士 個人의 能力만으로는 힘드는 時代에 와 버리고 말았다

現在 施行되고 있는 都市計劃法에 의한 建築의 制限 또는 都市 外部空間이라는 観点에서의 建物 높이의 制限, 美観的 見地로서의 形体와 平面과 外観의 制限들은 벌써 이러한 社会的 都市的인 思想을 如実히 말해 주고 있다.

이렇듯 複雜한 設計 行為의 그 対象이나 範囲에는 여러가지 変化를 낳게 하였으나 이러한 問題들의 本質的인 것으로 共通된 役割은 社会的 人間生活의 터전을 社会機構의 変化에 따라 어떻게 対應시키고 있느냐 라는 点에 建築士들의 設計 行為속에 그 職能의 本質이 있다. 世界 어디서나 그렇듯 우리나라의 文明도 긴 眼目으로 보아 그 進度와 発展은 社会体裁에 関係없이 今後에도 発展될 것이 確信되며 따라서 社会機構도 더욱 複雜化되고 専門化될 것이 確実하다.

그러므로 設計行為 그 自体의 対象이나 그 範囲도 더욱 多様하게 変化되어 가고 建築設計도 더 細分化가 予想된다. 이 専門化 分業化가 発展되면 될수록 各 分担専門職能끼리의 相互 関係는 보다 有機的으로 든든히 連帶되어야 한다. 이러한 建築士들의 앞으로의 設計 行為나 職能은 于先 建築의 要求에서 附遣되는 모든 요구가 앞으로 무엇을 바라며 또 그 要求를 形体로 制作 設計하려면 어떠한 職能의 팀을 짜야하며 어떻게 整理하면 보다 完全한 所期의 目的을 短時日에 이룩할 수 있느냐 라는 techne, 即 技術이 能한 建築士라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未來의 予想치 못할 発達로 建築生産方式에 変化가 生긴다. 하드라도 建築士들의 設計職能은 더욱 뚜렷 하게 細分 分解가 要求될 것이 確実하다.

벌써 現在 우리나라에서도 建築生産 方式이 近代化된 建築에서는 設計行為의 職能別 分化를 強力히 要求하고 있다.

即 機能設計技術者 構造力学専門職, 構成設備, 資材, 地質, 意匠, 室内空間, 外部空間, 造園等等 各 分野別로 깊이 있게 研究한 専門 職能들을 限定 要求하고 있는 傾向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建築士의 職能에 数次의 変化가 준 経路의 総帰結이 될 要点은 다시 厳密한 뜻으로의 Architecton의 語源的인 職能이 되살아 난다는 뜻이기도 한것 같다.

그러나 大部分의 建築士들은 現代 造形的 要素로서의 空間에 対한 常識的인 概念은 있었으나 内部機能, 内部空

間에만 置重된 나머지 外部空間이라는 重要한 要素와 建物과의 関係를 疎忽이 한것도 틀림이 없다.

이 空間 概念이야 말로 建築의 媒体이며 建築의 容量과 空虛와의 올바른 関係가 얼마나 重要한 것인지 認識치 않는 수가 많았다.

그러나 이 空間, 時間이라는 問題는 現代디자인 用語에 의하여 널리 普及되기 始作 하였다.

從來 機能主義 萬能時代의 建築을 되돌아 보면 어느 意味로는 住居 病院 学校, 駅舍, 電話局 等의 그 建物別 用途의 機能의 存在를 前提로하여 어떻게 그 建物을 三次元的인 空間体로 만드느냐 하는데 焦点을 맞추고 그 建物設計 過程에서는 새로운 資材와 構造의 駆使와 最大로 單純化한 솔직한 表現과 経済性 管理, 使用의 効用만을 中心으로 한 平面計劃과 立面을 合理的으로 解決하면 그것에서 나타내는 最終点인 形態는 自然히 새로운 機能美로 成立되었던것 같다.

이러한 建築의 內部機能을 있는 그대로 建築全体에 다 表現하려던 機能主義의 强한 魅力도 現代라는새로운 命題에 의하여 変化되고 말았다.

機能主義 時代에는 內部機構를 通하여 얻어진 形態의 発見이 있었듯이 지금은 그 內部機構도 包含된 보다 넓은 外部機構, 即 環境 空間의 存在가 論義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現代에서의 建築機能이란 그 內部的인 要求를 充足시키는 性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建物을 둘러싸고 있는 外部機構 即 外部空間 속에서의 存在 意義를 뜻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것은 建築物 하나로서의 外部機能 即 外部 機構에 対한 機能만이 아니고 그 建物을 둘러싸고 있는 総体로서 建物全体를 流動하는 空間 意識을 말하는 것이다.

더우기 現代에 와서 이 外部 空間과 內部 機能과의 混合은 漸漸 複雜化됨에 따라 外部空間의 変化가 複雜해 졌음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뒤얽힌 內外部空間의 変化가 점점 더욱 顯著해지는 것이 近來의 特徵이기도 하다.

最近 開業한 南大門路의 새로나 百貨店과 教会의 複合建築, 호텔과 商街, 아파트와 商街, 事務所와 駐車場, 地下鉄과 百貨店, 劇場과 百貨店, 슈퍼마켓 等을 보더라도 얼마나 近來의 交通手段, 生活様式, 流通機構의 発展에 따라 変遷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또 다른 面에서 볼 때 社会가 高密度化됨에 따라 建築施設도 점점 複合化 되므로 새로운 機能主義 建築의 原則도 通하지 못하게 되고말 것이다.

外部空間 機構의 変化와 代謝가 顯著해 진다는것은 從來 建築家들이 즐겨 計劃하던 所謂 融通性 있는 使用目的 変更 또는 解体 等의 建築內部 機能의 代謝 変体라는 뜻이 많이 바뀌게 될 것이다. 將次에는 建物하나 하나의 內部 機能의 変更도 許諾이 안될지도 모른다.

都市라는 次元에서의 個個의 建物은 그리 重要視 되지 않는다.

有機的인 都市環境 外部 空間의 새로운 創造意識은 앞으로 더욱 더 必要하게 되지만 그 안의 個個의 建物들이 有機的일 必要는 없다 라는 傾向이 될 것이다.

이것은 어떤 地域에 計劃될 建物의 內的인 機能 또는 外部 空間에 対한 機能의 意義가 그 地域에 잘 調和될수 있는 三次元的 空間의 表現을 理想으로 하기 때문이다.

建築士들의 実際面은 構造 資材 等의 問題이지만 建築의 本質은 空間의 支配에 의하여 서기 때문이다.

眞正한 外部 空間의 設計란…

建築士 自身이 設計한 建物에 의해서 占有되는 空間뿐만이 아니라 그 建物에 의해서 占有되지 않은 空間 即 逆空間에 까지도 変化와 刺戟과 生命이 復活될 수 있게 細心한 注意를 기울일 때 비로소 創造되는 것이며 全体建物의 配置를 建築의 一部로 生覚하거나 또는 지붕이 없는 建物의 外廓線 나머지 部分을 外部空間으로 認識될때에도 外部 空間의 設計는 達成 될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